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8월 3일(일) 제1551호



하용조 목사 소천 14주기 추모예배. 이재훈 위임목사와 박종길 목사가 헌화하고 있다.

차세대들의 아주 특별한 여름 방학!

10일까지 '여름 캠프'
16일까지 'QT하고 빙수먹자'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아주 특별한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다. 8월 10일까지 차세대 여름 캠프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유아부·유치부), 꿈이자라는땅(유년부·초등부·소년부),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소속 차세대들이 참가한다. 예수님의꿈아이와 꿈이자라는땅은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을 주제로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본당 및 외부에서 캠프를 한다. 파워웨이브는 'His Plan'을 주제로 외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한다.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빙수먹자'도 8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 등 차세대 QT 교재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총 24회 QT를 한다. 4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 QT'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일수에 따라 빙수를 선물로 준다.

문의: 02-3215-3521

/ 홍하영 기자

CGN, 영화 '무명(無名)' 1:1 결연 복음릴레이 캠페인

CGN에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1:1 결연 복음릴레이 캠페인'을 한다. 영화관 관람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성도들과 한인 이주민 성도, 해외 선교사들이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을 관람하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후원금 1만 원을 후원하면 1명의 성도 혹은 선교사가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1:1 결연 복음릴레이 캠페인에 후원금을 입금할 때는 입금자명과 생년월일을 꼭 기입해야 한다(예: 온누리 910128). 더 자세한 내용은 CGN 홈페이지(cgnkore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후원계좌: 하나은행

228-910021-96104(재)온누리선교재단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소천 14주기 추모 기간 보내
하용조 목사 생전 설교 영상 상영, 소천 14주기 추모예배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 소천 14주기 추모 기간'을 보냈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용조 목사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관련기사 3면>.

온누리교회는 지난 7월 28일(월)부터 8월 1일(금)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국내 12개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 하용조 목사의 생전 설교 영상을 상영했다.

8월 1일(금)에는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기념채플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14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추모예배는 이재훈 위임목사 사회, 홍성호 장로 대표기도, 블러썸

챔버 특순, 박종길 목사 설교, 유가족 대표 하성석 부원장 인사, 강부호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갈 6:14)를 주제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하용조 목사님은 평생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사셨다"면서 "우리로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 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고 권면했다.

유가족 대표 하성석 부원장은 "아버지는 성경 속 제자들처럼 살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셨던 분"이라며 "아버지의 꿈을 온누리교회가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하

다"고 인사했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하용조 목사님은 늘 성령과 함께하시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축복이자 성공으로 여기셨다"면서 "하용조 목사님처럼 늘 성령에 붙들려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김종승 장로(수원온누리교회)는 "아직 하용조 목사님만큼 신앙과 인품이 모두 훌륭한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서 "그분을 기억하며 늘 겸손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제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홍범식 장로(중종로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님은 예수님만큼이나 이웃을 깊게 돌보며 사랑하신 분"이라며 "목사님께 배운대로 어려운 이웃들, 잊혀진 선교사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끈임없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여름 아웃리치 318개 팀 6,368명 참가

국내 193개 팀 4,340명 해외 125개 팀 2,028명

2025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내외 318개 팀 성도 6,368명이 참가한다(8월 1일 기준). 국내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 193개 팀 4,340명이 참가한다. 춘천, 남양주, 제주, 태안 등지에서 군 장병 초청 잔치, 마을 및 노방 전도, 어린이 사역, 어르신 섬김, 마을 미화 작업 등을 한다.

해외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 125개 팀 2,028명이 참가한다. 미얀마, 일본, 스리랑카, 뉴질랜드 등지에서 선교사 위로와 교제, 교회 보수, 어린이 캠프, 마을 전도 등을 한다.

북아프리카 T국 아웃리치를 다녀온 박흥순 권사(강동온누리교회)는 "선교지에서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 계획안에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뤄졌음을 체감했다"면서 "우리가 뿌린 작은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관련기사 6면>.

<온누리신문>에서 여름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간증(한글 파일 기준 글자 10포인트로 A4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미디어본부에서는 8월 31일(일)까지 '2025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여름 아웃리치 영상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5) 하거나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onnuriacts29)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도 응모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8월 비전헌금 '군 선교 후원'

8월 9일(토)과 10일(일) 봉헌하는 8월 비전헌금은 온누리교회 군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군 선교팀은 대한민국 60만 장병들의 복음화를 꿈꾸며 전국 각지 부대를 찾아가 전도집회와 진중 세례식을 개최하고 있다. 군 선교는 청년 복음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손꼽힐 만큼 중요한 사역이다<관련기사 5면>.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하나님은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상 밖 인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도덕한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영웅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라합의 이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전당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여인입니다. 믿음의 본질, 하나님 은혜로 얻는 구원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인물이 라합이기에 등장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을 따라 구원받은 믿음

<여호수아> 2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던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여리고 경찰이 정탐꾼들의 잠입 사실을 파악했고,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있는 정탐꾼들을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거짓말로 여리고 경찰을 따돌립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받습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를 안전하게 빠져나온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여리고는 심판 직전에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의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 비추어오는 한 줄기 빛을 보고, 자기의 몸을 그 빛에 내던지는 모

험이다.”

라합의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을 따라 구원받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

라합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여리고 경찰을 따돌린 것은 생명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라합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정탐꾼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의도적으로 거짓말해서 여리고 경찰을 따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전능하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9절).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11절).

라합의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경외심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위험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은혜로 얻은 믿음

둘째, 라합의 믿음은 은혜로 얻은 믿음입니다. 정탐꾼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여리고에 퍼져 있는 소문을 듣고 가지게 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에 처한 여리고 도성에서 어둠 속에 거하던 한 여인을 구원하심으로 정탐꾼들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소문으로 들은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합이 들었던 내용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를 진멸하셨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믿음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

여호수아 2:8~18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되는 변화의 모형입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지식의 분량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 시대에는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주장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라합처럼 들었던 내용이 많지 않지만, 진리를 굳게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셋째,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약 2:25~26).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행함이 자신과 가족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에 처할 운명에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지만, 영원한 죽음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박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믿음

넷째, 라합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12~13절).

여리고가 장차 멸망할 때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을 함께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이 돌아간 이후부터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일부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진멸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라합의 집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는다면 라합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동입니다.

세상과 맞서는 믿음

다섯째, 라합의 믿음은 당시 세상과 맞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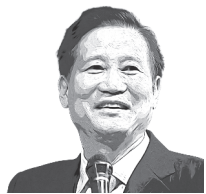
소문을 라합만 들은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 걸 보면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믿을 때 따라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외로운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당시 세상과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로마 가톨릭 세력에 맞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죽기를 각오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상과 맞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신학적 논쟁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는 모두가 옳지 않은 것을 믿을 때 올바른 믿음을 외롭게 지키고자 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합도 참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항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항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참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는 사례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과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씻겨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을지라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방 여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죄인 된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변화의 모형입니다. 우리 과거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멸망 받을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처럼, 멸망 받을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故 하용조 목사 그분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이철 장로
(OCC 공동체, 하나로
의료재단 명예 원장,
전 연세의료원장)

2011년 8월 1일 월요일 이른 새벽, 당시 세브란스 병원장 박용원 장로로부터 하용조 목사님께서 응급실로 내원하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응급실을 찾으시던 상황과 달리 뇌혈관의 심각한 출혈로 인해 응급 뇌수술이 필요한 위중한 상황이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허승근 교수의 집도와 가톨릭의대 신경외과 허필우 장로의 참관하에 뇌출혈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술 몇 시간 후, 뇌의 재출혈과 함께 뇌부종이 심해졌다. 2차 뇌수술은 허 교수의 집도하에 신경외과 뇌수술 전문의인 서울대병원장 정희원 장로도 참관하였다. 정희원 장로와 허필우 장로의 뇌수술 참관은 이형기 사모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수술 중 심한 뇌출혈로 지혈이 어려웠고, 뇌부종 또한 심각한 상태였다. 이를 목격한 정희원 장로는 집도의인 허승근 교수와 허필우 장로와 함께 소생 가능성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형기 사모님께서 무의미한 소생술을 허락하지 않으심에 따라 하용조 목사님께서 8월 2일(화) 65세의 일기로 소천하셨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2000년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다. 이미 30여 년간 B형 및 C형간염 보균자 상태

에서 간암으로 진행되었으며, 1999년에는 미국 Scripps 병원에서 간암 절제술을 받으신 상황이었다. 이후 간암이 재발하여 서울삼성 병원에서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으셨으나, 다시 간암이 재발하였다. 당시 하 목사님께서 여러 질환을 각각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셨다. 강진경 당시 세브란스 병원장님은 여러 질환을 앓는 환자일수록 담당 의사들이 같은 병원 소속으로 구성되어 협진해야 한다고 하 목사님 주치의의 팀을 구성하고 총괄을 맡으셨다. 강진경 병원장님은 연세의료원장으로 취임하셔서 더 많은 일을 수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 목사님 치료에 각별한 정성을 쏟아주셨으나 2004년 소천하셨다. 이어 필자가 총괄을 이어받았다.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팀으로 간암 색전술 치료 담당 영상의학과 이종태 교수와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가 참여했다. 4차에 걸친 색전술 시술과 2008년 아산의료원장 이승규 장로의 간 절제 수술 이후에는 재발이 없었다. 발병한 지 25년 된 당뇨병과 합병증 치료를 위한 주치의 팀에는 내분비내과 이현철 교수, 신장 투석을 담당한 신장내과 한대석 교수, 스텐트 시술 등 협심증 치료를 맡은 심장내과 안신기 교수, 그리고 당뇨병 망막 치료를 담당한 안과 권오웅 교수가 참여하였다. 치료 과정 중 다른 질환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 세브란스병원 여러 진료과 교수가 협진하였다. 아마도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서 협진했기에 이때 하 목사님께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당뇨병은 온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데 그중 신장혈관이 가장 먼저 망가진다. 망가진 신장혈관 대신 인공투석기가 노폐물을 걸러내는 치료를 ‘혈액투석’이라고 한다. 25년간 당뇨를 앓아오신 하 목사님께서 2006년부터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셨다. 혈액투석은 소천하시기 전까지 5년간 지속되었다.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4시간이 소요되는 투석 중에 필자는 목사님을 자주 찾아뵈었다. 하 목사님께서는 투석 중에 가끔 햄버거를 드시기도 하였고, 드물게 투석 후에는 짜장면을 즐겨 드시기도 하셨다. 의사로서 말려야 했지만, 목사님의 행복한 표정 앞에 차마 ‘드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Love Sonata(이하 러브소나타)’를 시작하셨다. 하 목사님께서는 러브소나타를 위한 온누리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자”고 말씀하셨다. 걷는 사람 중에 목사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 목사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러브소나타 실무를 담당하시는 일본 목사님들께 말씀드리니 그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 목사님께서는 러브소나타에 너무 집중하시다가 투석 날짜를 지나쳐 심장마비 직전까지 이르러 위험했던 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 두란노서원 대표이며 하 목사님 일본 체류 중 진료를 총괄하신 산부인과 이운구 장로님의 가슴을 조이게 하신 적도 있다. 미국에 체류하며 투석하실

때는 얼마인온누리교회 김수광 장로님과 김인호 권사님이 주로 섬김을 맡아주셨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몇 개월 전, 심장 주치의인 연세의료원장 정남식 집사(현 명예장로 후보)가 목사님 부부와 교회 리더들에게 ‘하 목사님의 혈관 상태가 뇌출혈이나 협심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위험성이 높으니 설교를 비롯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사모님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 목사님께서는 “나는 설교하다 죽고 싶다”며 설교를 계속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몇 달 후인 2011년 7월 31일(일) ‘변화산에서 생긴 일’(막 9:2-13) 설교를 마지막으로 8월 1일(월) 새벽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이다.

〈고린도후서〉12장에서 사도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빼 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하 목사님의 몸에 가시들을 알고 있던 필자는 목사님의 〈고린도후서〉12장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의 처절한 동병상련의 심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마임의 유영섭, 홍혜실 회장 부부는 “하 목사님께서 ‘하루라도 아프지 않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고백을 하셨다”며 눈물을 흘리셨다.

“보고 싶고 그리운 목사님! 이 세상에서 그리도 아프셨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품에서 하루도 아픈 날이 없는 쉼의 날을 누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작은 예수, 순교자처럼 사셨던 목사님



정정은 권사
(양천공동체)

2011년 여름, 온동하고 씻으려던 그 더웠던 날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3일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집에서 삼일장을 치르고 교회에 나온 주일 아침,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프다”는 어느 성도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43세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나이를 내 나이가 넘어설 때 힘겹고 감사했듯이, 이제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나이를 쫓아가면서 ‘나’를 점검합니다.

가을날 바삭 마른 낙엽을 손으로 쥐면 손바닥 속에서 잘게 부서지듯 그렇게 부서질 것만 같은 메마른 영혼이었을 때 하용조 목

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망설이던 온누리교회를 선택할 때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실감하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먼 거리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용조 목사님의 꿈에 동참하며 저도 ‘온누리’가 되었습니다. 선교에 목숨을 건 하용조 목사님을 따라 동경을 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곳을 선교지로 알고 살며 행복했습니다. 때로 상처 되는 말이 들릴 때는 “Pass”, “No Thank You”라는 목사님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넘어갈 수 있었고, 암에 걸렸을 때도 ‘하 목사님은 암 수술을 7번 이상했는데 한 번쯤이야’라고 가볍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참된 리더는 지배력이 아니고 영향력’이라 일러주신 대로 내 권한을 넘어서지 않고 적절하고 질서있게(고전 14:40) 권사로서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는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읽을 때 하용조 목사님은 이 구절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품으면 마음이 넓어져요”라고 풀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어렵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지도록 풀어주셨는데, 성경과 함께 먹었던 그 보석 같은 설교 말씀들이 순간순간 생각납니다. “인격 고치세요”, “(주의 일하다가 죽을 상황이면) 그냥 죽으세요”, “사람을 목상하면 동이 나와요(요 8:44)”,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예요”, “성경은 입양 이야기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방언을 사모하세요”, “믿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등 목사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엡 4:15)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성경을 읽는 힘을 길러주려고 쉬운 단어를 선택하셨던 목사님을 신앙의 스승으로 본받습니다. 목사님은 늘 교회를 가족보다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져 이형기 사모님께 늘 미안했던 마음도 이제야 전달합니다. 사모님께서 여전히 강건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을 보낸 지 14년, 내가 온누리교회에 온 지 20년인데 날마다 더 선명하게 목사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걸 보면 목사님은 죽어서 더 많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랬듯 지금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온누리교회를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 있는 순교자처럼 사셨던 목사님이기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허락하셨나 봅니다(요 14:12).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신 2대 이재훈 위임목사님도 하용조 목사님을 점점 닮아가십니다. 영적인 아버지로 만나 신앙의 선배로 기억되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날, 그리운 목사님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반갑게 뵈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세계관 대결

세계관 대결, 승자는 누구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남녀 공용 화장실 같은 주제는 오늘날 사회의 주요한 이슈이자 논쟁거리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과 세계관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로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점점 더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하고,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단지 이 흐름을 늦추는 것뿐일까? 그저 시간을 벌고 다음세대를 위해 조금이라도 저항의 흔적을 남기는 정도밖에 없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이런 제도들이 정말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는다. 동성애자들은 정말 한 번도 ‘이성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까? 모든 이들이 길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개인의 내면에는 표현하지 못한 갈등과 고민이 존재할 수 있다. 또 어떤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사회적 여성

이라고 주장하며 여성 전용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될까? 만약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온 정직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이 혼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제도와 질서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그것이 평등이나 자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더라도 인간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질서와 충돌한다면 결국 그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와 유사한 예가 이미 존재했다. 20세기 인류를 양분했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결국 자본주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공산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것을 수정한 사상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분명히 감소했다.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이상은 그 뒤편에 보였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자유를 억제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인류는 그것을 실험하는 데 수십 년을 투자했고, 결국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존재다. 시행착오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창조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인생의 설명서’이다. 그중에서도 성(性)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질서를 세워주셨다. 이것과 어긋나는 제도와 질서는 오래갈 수 없다.

미국에서는 매년 ‘Wacky Warning Labels Contest’라는 대회가 열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에 제품 경고문에 어떤 내용이 빠져서 피해를 봤다고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남발하자 이를 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대회이다. 예를 들면, 유아용 유모차는 “접기 전에 아이를 빼십시오”, 다리미는 “옷을 입을 상태로 다리지 마십시오”, 화장실 청소용 솔은 “몸을 닦는 데 쓰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올해의 황당 경고 문구로 선정된 적 있었다. 이것은 불필요한 소송과 비합리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진리를 시사한다. 어떤 것이든 만들어진 의도와 사용법을 무시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과 성(性)에서도 창조주의 의도를 무시한 채 살아갈 때 혼란과 충돌은 필연적이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목소리가 작아 보이고, 사회 전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삶의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세대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주장이 비웃음을 사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질서를 따르는 삶이 결국 가장 인간답고 평안한 삶이라는 확고한 소망이 있다. 세계관 대결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센 시대의 물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이종희 성도
(중종로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후회 없는 선택: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기

모든 청소년기 전후 자녀를 둔 부모는 아마도 이런 말을 언젠가는 듣게 될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 언제 가질 수 있어요?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수많은 부모가 이 말에 굴복해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를 자녀 손에 쥐여주었다. 실질적으로 부모가 통제할 기능도 없는 기기들도 말이다. 그저 사회적 압박 때문이다. 자녀가 그런 걸 갖지 못하면 따돌림당하거나 기술 발전에 뒤처지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다.

만약 당신이 그 상황에 있고, 지금 굴복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다. 많은 부모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자녀에게 준 것을 후회하고 있고, 그런 기기를 주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린 글에서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조너선 헤이트는 윌 존슨, 잭 라우쉬와 함께 전국 부모와 10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약 3분의 1, 스마트폰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4분의 1 가까이가 “지금 돌아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주었다”라고 답했다. 반면, “자녀에게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을 더 일찍 주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한 부모는 단 1%였다.

즉, ‘부모들은 자녀에게 준 기술을 후회하지, 주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스마트기기와 함께 자란 아이들 역시 부모보다 강하게 기술에 대한 후회를 느끼고 있었다. 하이트와 연구진이 이전에 해리스 폴(Harris Poll)과 함께한 조사에서 Z세대 성인의 30%가 “나는 너무 이른 나이에 스마트폰을 접했다”라는 진술에 동의했다. 3분의 1이 넘는 이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같은 응답을 했다. Z세대 응답자의 45%는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고등학교 이전에는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 절반은 “틱톡이나 X(구 트위터) 같은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여전히 많은 부모가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게 놀랍다. 부모는 이런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녀에게 그 순간의 만족이나 침묵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양육해야 한다.

코미디언 지미 카(Jimmy Carr)가 지적했듯이, 아이가 원하는 걸 즉시 다 들어주는 건 친절한 게 아니다. 아이들이 요구할 때마다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TV, 비디오 게임을 허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그의 표현대로) ‘똥똥하고

멍청한 아이’를 키우게 될 것이다. 내 경험상 자녀에게 경계를 세워주지 않으면 도로로 뛰어나가게 되고, 그러면 자녀 자체를 잃게 된다. 지미 카는 그 대안으로 자녀의 가능성에 관대해질 것을 제안했다. 곧 그들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사람, 될 존재에게 관대하게 하라는 것이다.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좋은 성적을 격려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더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아직 안 돼.”

이처럼 문화적 흐름을 거스르는 태도를 보이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 가운데 하나는 대안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다. 하이트와 공동 저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부모의 55%가 자녀가 12세 이전에 스마트폰의 주요 사용자가 되었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준 부모의 40%, 소셜미디어 계정을 허용한 부모의 54%는 “더 기다리고 싶었으나 자녀의 친구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었다”라고 말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스마트폰을 안 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 이 정보를 다른 부모들과 공유하라. 교회에서, 직장에서, 친척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후회하는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도록 권하라. 하이트가 말하는 ‘놀이 중심의 육년기’를 지지하는 또래 그룹을 만들

고, 학교나 교육 협력 단체에 스마트폰 금지를 요구하라. 아이들 주변을 스마트기기에 고개를 처박고 있지 않은 또래들로 채워나가는 것은 그들이 주는 압력을 오히려 자녀 교육에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부모들의 후회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그 후회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서 비롯된다. ‘너무 이른 나이의 포르노 노출’, ‘심각한 신체 이미지 왜곡’, ‘멈출 수 없는 스크롤 중독과 도파민 의존’, ‘트랜스젠더리즘 같은 사회적 전염’ 등이다.

이 모든 어두운 영향력은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주는 그 순간부터 아이의 마음과 정신에 단 한 번의 탭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 주지 말라! 해결책은 그만큼 간단하다. 어른이 되어서 접할 시간은 충분하다. 심지어 세속적인 연구들조차 점점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자녀의 이 땅에서의 건강뿐 아니라 영원한 영적 건강을 위해 헌신한다면 이 순간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책임이 있다. 여론조사가 맞다면 자녀는 언젠가 우리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 세인 모리스(콜슨센터 선임작가, 언론인)

원문: breakpoint(2025721)

진중 세례, 그 깊고 참된 의미!

가장 깊은 차원의 복종과 가장 진실한 순종



안상현 장로
(한강공동체, 군선교팀)

한여름 땀별 아래 한 예배당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거칠고 목췌 훈련병들의 목소리다. 그들의 목소리엔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지난 7월 12일 5사단 신병교육대 예배당에서 진중 세례식이 열렸다. 세례를 받은 119명의 병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장병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진중 세례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시기, 가장 연약한 순간 내린 가장 굳건한 결정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4절에서 이렇게 권면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명확한 위계와 권위가 존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복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며, ‘책임’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 안에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곧 가장 깊은 차원의 복종과 가장 진실한 순종을 의미한다. 바울의 말처럼, 자기를 모집하신 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결단이 진중 세례에 담겨 있다.

진중 세례, 믿음의 근육 단련하는 그 첫걸음

입대 전까지 이 청년들은 어찌면 세상의 쾌락과 욕망, 그리고 자기중심의 삶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러나 낮은 환경, 절제된 생활, 외로움,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그때,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뿌려진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했듯이, 군 생활이라는 삶의 광야에서 복음은 장병들에게 더욱 날카롭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진중 세례를 받는 훈련병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게 아니다. 그들은 혈기 왕성한 시기에 삶의 주인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것이다. 이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가장 불안정한 시간에 가장 확고한 선택을 하고, 가장 힘든 공간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귀한가.

세례는 회개와 결단의 표시다. 예수님이 요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대한민국 60만 국군 장병들의 복음화를 꿈꾸고 있다.

“너는 참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온 너는 이 세상 어떤 무공훈장보다
귀한 영적 승리자야!”라고 말해줘야 한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들 또한 진중 세례를 통해 복음 안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는 말씀처럼, 진중 세례를 받는 청년들은 과거의 죄와 허물을 물속에 담그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다.

군 생활은 한 개인의 인격을 새롭게 빚는 시간이며, 동시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놀라운 기회다.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철저한 공동체 생활’, ‘규율 속의 질서’, ‘자기 통제의 훈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훈련으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진중 세례는 단순한 신앙의 출발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신실한 여정 그 첫걸음이다.

군 선교, 가장 실제적이고 전략적 기회

한국의 복음화율이 20% 초반에서 정체된 지 오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군대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공간 중 하나다. 일시적으로나마 한국의 거의 모든 청년 남성이 이 ‘공동 공간’에 들어오고, 그곳에서 군 선교사나 군종 목사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다.

군 선교는 단순히 ‘군에서 전도하자’는 사역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다음세대를 세우는 가장 실제적이고 전략적인 기회이다. 군 선교는 곧 청년 사역이며, 미래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비하는 제자훈련의 장(場)이다.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마 28:19)라고 명하신 말씀에 가장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장소가 바로 군대이다.

군대에서 복음을 접한 이들이 제대 이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교회의 일꾼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직장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 이런 점에서 군 선교는 단지 전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를 깨운다!” 진중 세례의 파급력

군대에서 세례받는 것은 개인의 결단이자, 공동체에서의 공개적 고백이다. 이것은 요즘 시대에 점점 줄고 있는 ‘공적 신앙’ 훈련이다. 교회에서도 신앙을 말하기를 꺼리는 이들이 많아진 이때, 훈련병들이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다. 마치 <로마서> 10장 9절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고백은 공동체를 깨운다. 동기 중 몇몇이 먼저 믿음을 고백하면 그 울림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된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대 안에 ‘믿음의 불씨’가 옮겨붙는다.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병사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결국 한 중대, 한 대대가 변하는 일도 있다. 이것이 바로 진중 세례의 파급력이다.

군 선교 현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인력도, 재정도, 기도도 모자란다. 그러나 이 사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꿈꾼다면 이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들이 제대 이후 세상 속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마음에 복음이 뿌리내렸다면 그들의 삶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 시키셨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며 준비했다.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각 군 교육사 및 각지의 군부대는 그와 같은 영적 광야이며, 하나님이 청년들을 빚어가시는 거룩한 훈련장이기도 하다.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승리의 선언

진중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승리의 선언이다. 훈련병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성령의 은혜가 적셔지고, 그들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들을 격려해야 한다. “너는 참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온 너는 이 세상 어떤 무공훈장보다 귀한 영적 승리자야!”라고 말해줘야 한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주여, 이 청년들이 군복을 벗은 뒤에도, 구원의 갑옷은 절대 벗지 않게 하소서.”

강동 동서울A공동체
북아프리카 T국

강동온누리교회 동서울A공동체가 지난 7월 4일(금)부터 7월 11일(금)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이슬람 국가인 북아프리카 T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북아프리카 T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이슬람과 유럽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다. 대부분 무슬림이지만, 수 세기를 돌아보면 뿌리 깊은 기독교 유산을 풍성하게 찾을 수 있다.

북아프리카 T국 아웃리치팀은 이준호 목사님과 이비오 목사님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외롭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로했고,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나눔과 교제의 시간도 가졌다. 유적지 및 신전 땅밋기를 하고, 무슬림 자매들을 초청해서 러브소나타 집회도 개최했다. 이를 위해 우리 팀은 아웃리치 준비를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아웃리치를 잘 마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 9:29).

북아프리카 T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들의 유산은 현지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곧바로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 팀이 특순으로 아랍어로 번역한 찬양을 드릴 때 회중들이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했다. 예배 이후 진행된



북아프리카 T국 현지 자매가 강동 동서울A공동체가 준비한 캘리그라피 체험을 하고 있다.

현지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블레싱에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팀을 향한 극진한 환대가 느껴졌다. 무슬림에서 개종해 크리스천이 된 성도들의 간증도 들었다. 그곳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라고 한다. 간증자 한 명은 온 가족이 무슬림이었는데, 길을 가다 우연히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도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분들을 기억하

며 한국에 돌아와서도 기도하기로 다짐했다.

다음날 유적지와 신전 등 땅밋기를 할 때는 무너진 땅에 교회가 다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번 아웃리치의 주요 사역인 러브소나타 집회에는 현지 이슬람 자매들을 초청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행사였다. 참가자들이 많이 참석하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했는데,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었다.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살고 계시는 저택이었다. 미국 선교사님이 ‘김 선교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들어주라’는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많이 오니 집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을 때 흔쾌히 허락하셨다.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다.

러브소나타 집회에서는 K-푸드, 캘리그라피, 한복 체험, 게임 등 다양한 부스를 만들어서 이슬람 자매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할 수는 없었지만, 섬김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심기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웃음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다.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싹 틔워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북아프리카 T국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떠난 다음 날부터 북아프리카 T국에 고온과 열풍이 불어와 무더운 날씨가 되었다고 한다. 아웃리치 동안 구름 기둥으로 선택한 날씨를 주시고, 아웃리치 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홍순 권사
(강동 동서울A공동체)

양지 동누리공동체
몽골

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아웃리치는 몇 번 가봤지만,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는 건 처음이었다. 게다가 엄마, 아빠, 동생 하늘이까지 온 가족이 같이 가는 거라 출발 전부터 엄청나게 기대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몽골은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에 정말 설렜다. 내 기대처럼 이번 몽골 아웃리치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했다.

가장 좋았던 건 몽골 친구들이었다. 몽골 친구들은 처음 보는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달려와 반겨주었다.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는데도 원래 알던 친구처럼 금방 친해졌다.

진짜 신기한 일도 있었다. 우리 팀에 아픈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위해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했더니 많이 나아지셨다. 아웃리치 동안도 별 탈 없이 지내셨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고 놀라고 기뻐했다.

몽골에 도착한 다음 날, 어른들이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는 동안 우리 가족은 어린이 사역을 했다. 나는 아빠를 도와주는 꼬마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선교사님 딸 민유 누나랑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아이들이랑 게임을 할 때 ‘말이 안 통해서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몸으로 보여주니까 다 알아듣고 웃어서 정말 신기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두 조로 나눠 가정 방문을 했다. 첫 번째 집에 사는 7살 여자아이는 아



양지 동누리공동체 아웃리치팀이 몽골 현지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직 말을 못하고 자주 경기를 일으키며 많이 아팠고, 두 번째 집에 사는 남자아이는 소아마비 때문에 걷지 못했다. 마음이 아팠다. 그 친구들이 아픈데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 친구들의 얼굴이 자주 생각난다.

셋째 날에도 나는 어린이 사역을 했다. 전날 가정 방문을 하며 만났던 친구들이 교회에 놀러 와서 반갑고 기뻐했다. 이날은 통역해 주는 분이 있어서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내가

친구들에게 예쁜 팔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선물도 나눠줬는데,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기분도 날아갈 것 같았다.

전날에는 불고기랑 잡채를 먹었는데 셋째 날에는 무려 자장면을 먹었다. 몽골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자장면을 먹으니까 더 꿀맛이었다. 이날 오후에도 가정 방문을 했는데, 이날 방문한 집들은 엄마들이 다 아팠다. 어른들과 함께 기도를 해드리고 왔다. 우리가 기도해 준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병도 나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보내주세요!”

몽골 현지 교회 버기 전도사님은 겨울을 준비하느라 엄청 바빴었다. 몽골은 겨울이 아주 길고 춥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준다고 하셨다. 공사가 얼른 끝나서 몽골 친구들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전도사님은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하셨다. 교회에는 낡은 그네 밖에 없었다. 내가 몽골에 다시 왔을 때는 꼭 멋진 놀이터가 생겨 있으면 좋겠다.

몽골에서 힘든 점도 있었다.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코피가 다섯 번이나 났고, 물도 이상해서 배가 살짝 아픈 것 같기도 했다. 선교사님은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커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선교사님은 더 힘든 것 같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몽골 친구들이랑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웠다. “다음에 또 올게” 약속하고 헤어지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기회가 있다면 몽골에 또 가고 싶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몽골에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내주세요!”



박규민 학생
(양지 꿈이자라는땅)

“기술 선교사를 찾습니다!”

도시교회선교팀, 시설 보수 재능기부자 모집

“팔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수술을 미뤘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요.”

경기도 성남의 한 미자립 교회는 주방 천장은 천막이고, 화장실은 쪼그려 앉는 변기를 쓴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다. 목회자 부부가 고장난 예배당을 직접 수리하다가 사모님 팔 인대가 끊어졌다. 그런데도 공사를 미룰 수 없고, 치료비가 부담돼 봉대를 감은 채 현장을 지키고 있다.

사회선교본부 Acts29 도시교회선교팀에서 ‘기술 선교사’를 찾는다. ‘도시 미자립 교회 시설 보수 재능기부자’가 그 주인공이다. 분야는 전기, 조명, 설비, 타일, 도배, 장판, 페인트, 목공 등이다. 관련 자격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술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든



도시교회선교팀이 도시 미자립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지 참여할 수 있다. 장비와 보험, 안전장비는 사회선교본부에서 지원한다.

박재광 팀장(도시교회선교팀)은 “도시 미자립 교회가 회복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며

서 “교회를 살리는 선교적 사명을 다해줄 ‘기술 선교사’들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문의: 010-2269-1591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5 온누리 MK 캠프

전 세계 15개국 33개 지역 MK 52명 참석

2025 온누리 MK(Missionary Kids, 선교사 자녀) 캠프가 지난 7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열렸다. 전 세계 15개국 33개 사역지에서 온 MK 52명이 참석했다. 허브대학부와 2000선교본부 선교재능기부팀이 참가자들

을 섬겼다.

온누리 MK 캠프는 2017년부터 매년 10세에서 18세 사이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MK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과 소명을 새롭게 붙드는 캠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요회복예배 ‘가족의 치유와 돌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회복사역본부 금요회복예배에서 8월 한 달 동안 ‘가족의 치유와 돌봄’을 주제로 특별예배를 드린다. 8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가족의 치유와 돌봄에 관심이 있는 성도와 가정이 대상이다.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가족의 의미와 역할을 기독교적

으로 조명한다.

금요회복예배 8월 특별예배에서는 8월 8일 박성덕 소장(연리지 가족부부연구소), 15일 성지현 교수(계명대학교 간호대학), 22일 이현주 교수(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29일 남윤영 박사(국립정신건강센터)가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02-3215-3532

양육자반 심화과정 온라인 특강 ‘메이크업5’

8월 10일과 17일 오후 8시 온라인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심화과정 온라인 특강 ‘메이크업5’가 8월 10일(일)과 17일(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8월 10일 ‘성령 충만’, 17일 ‘시험’을 주제로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강 또는 수료한 성도가 대상이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는 7월부터 개편된 일대일제자양육 새 교재 내용을 다룬다. 신청은 문자 메시지로 QR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 010-3929-6793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말씀과 기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

제이홉사역팀(입양위탁가정 공동체)에서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한다. 8월 17일(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아동권리보장원 한명에 본부장이 강의한다.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에서는 입양과 위탁에 관심 있는 예비 입양(위탁) 가정에 입양제도 개편(25.07.19)에 따른 입양 절차, 법적 예비 양부모 자격 및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한다.

문의: 010-6579-0885

NGO 더멋진세상, 아동학대 인식 개선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가 지난 7월 초 KOICA와 함께 아동학대 인식 개선 캠페인 ‘빅 워크’를 개최했다. 빅 워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길거리를 행진하는 캠페인이다. ‘어린이의 권리를 위해 함께 걸어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경찰 등이 참여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8기 참가자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1일부터 4주 동안(1, 2주차 토요일, 3-4주차 토·일 1박2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신청은 10월 8일(수)까지 전화나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24가정을 모집한다. 회비는 40만 원(자녀동반 1인당 7만 원 추가).

문의: 남편(010-4928-0707), 아내(010-3340-7039)

‘휘튼가스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9월 18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휘튼가스펠아카데미(WGA, Wheaton Gospel Academy)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8일(목)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에서 개강한다. 2년, 4학기 운영한다. 학비는 학기당 2백50만 원(온라인으로만 수강하면 2백만 원)이다. 등록 및 접수 마감은 8월 28일(목)이다.

휘튼가스펠아카데미에 등록하려면 서류 접수 먼저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wheatongospel@gmail.com)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2명 이상 함께 등록하면 5%, 2학기 선납하면 5%, 온누리교회와 복음과도시 이사교회 성도는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휘튼가스펠아카데미는 미국 기독교 명문 사학 휘튼대학교와 사단법인 복음과도시가 함께 만든 신학 교육 기관이다. 한국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에게 복음 중심의 건전한 신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다.

문의: 02-867-8425

제55회 메시아 연주회 합창단원 모집

8월 17일까지 이메일 또는 QR코드로 참가신청

온누리교회가 주관해서 오는 12월 4일(목) 열리는 ‘제55회 메시아 연주회’에 참여할 합창단원을 8월 17일(일)까지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메일(2025messiah55@gmail.com)이나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오디션은 9월 1일(월)과 5일(금)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에서

한다.

‘메시아 연주회’는 초교파적인 행사다. 70여 개 교회 찬양대원으로 합창단을 구성한다. 매년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찬양대원 300여 명과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자선연주회다.

문의: 010-9450-7275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 참가자 모집

9월 9일~11월 11일 매주 화 서빙고 성가대실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2층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

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010-3412-7966

양재수 장로, 故 강미자 권사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차량 후원



양재수 장로가 지난 7월 23일(수)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차량을 후원했다. 생전 청소년 사역에 깊은 관심과 헌신으로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봉사해 온 부인 故 강미자 권사의 뜻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나눔이었

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김형근 소장은 “금정역 부근 침수 피해로 쉼터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양장로님의 차량 후원 덕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illegible]

결혼

8월 9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이기훈, 권은주의 아들 이양선
 이동호, 유선영의 딸 이지현

8월 9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홀
 진순애의 아들 옥가수
 고 김준규, 황윤정의 딸 김주연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웅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심예은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는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웅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웅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웅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합창단 모집
 기간: 2025년 11월까지
 모집: 세대 교류 및 소풍을 희망하는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내용: 합창 연습, 세대 간 교류 및 소풍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서울역착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온라인 안내
 실시간조회: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녀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송),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광고

■ 소천
7/25(금) 동자 신유진 성도 모친상, 조규상 성도 빙모상 고 이지는
7/25(금) 양재A 박상근 성도 부친상 고 박일남
7/25(금) 도곡 김혜현 성도 모친상 고 황승희
7/26(토) 경기A 최미숙 집사 모친상 고 안정희
7/26(토) 성북 김영순 성도 배우자상, 유진희 성도 부친상 고 유건

7/28(월) 한강 김희석 집사 시모상 고 윤희순
7/28(월) 송파A 김진희 성도 부군상 고 오재영
7/28(월) 양재B 박정웅 성도 부친상 고 박부돌
7/30(수) 도곡 이정숙 성도 모친상 고 김명남
7/30(수) 양재B 김민경 성도 시부상 고 송종환
7/30(수) 목대문중앙 김상봉 집사 모친상 고 강민자
7/31(목) 일산 주순자 권사 남편상 고 고광범

■ 광고
Point5 공동체 찬양팀 세션 모집
 모집: 일렉기타 1명
 합주: 주일 오전 9:00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장성엽(전도사(010-2531-7610), airplanetunes@gmail.com)